

제 183 호

부활 제 6 주일

1976. 5. 23.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강론 ●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다.

김 반 석 신부



요즈음 구 교우들의 신앙생활 양상을 보면 여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교우들은 "교회법이 옛날과 같지 않고 많이 약해졌다"고 자가독백을 하며, 신입 교우들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지만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교회법이란 규율이요, 또한 우리 신앙생활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워 제정된 것이지만 그 입법정신만은 더 강화 되어야 하며 참신한 신앙생활로 순화되어야 할 것 같다.

전교면에서 볼때 3천 5백만. 인구중 우리 교우 수는 불과 백만이며, 그 백만 중에도 1/3은 냉담교우이다.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1년에 70만 정도인데 여기에 교우 증가율은 2만 밖에 되지 않음을 생각할때 새로운 방향 제시가 요구된다.

복음 전파의 지침서인 가톨릭 교리서, 기도서, 성경을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아니, 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가...생각해 볼 문제이다.

전교의 주 역할을 하고 있는 레지오 마리에 단원은 교본의 요지부동한 법규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출석에 의의를 갖기 보다는 좀더 능동적인 활동으로 전교사업에 빛이 났으면 하고 아쉽기도 하다.

자기 신앙의 척도를 알며 정신을 함양 할 수 있는 공동체 목사회-이처럼 좋은 제도를 과연 나는 참석을 했었는지...남의 재촉에 못견디어 마치못해 받으면서 휴식시간에 쓸데 없는 잡담(본당의 흥허물...)은 하거나 앉혀나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진정한 참회와 기도로 나 자신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며 본당 신부, 수녀의 흥허물을 논하기 전에 나의 흥허물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나만이 목사회며 꾸르실료 등을 수로할게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게도 모범적인 행동과 기도로 많이 참석하여 더 밝고 빛나는 교회가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여산 전주교회 주임신부>

이 주일의 미사 해설

* 부활 제 6 주일 * (기도서 P. 300)

알렐루야, 벗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미사는 우리가 하느님께 배운 사랑으로, 빵을 나누어 먹는 잔치입니다.

□제1독서(사도행전 10장 25-26절, 34-35절, 44-48절 p: 289)

오늘은 로마 사람 고르넬리오의 영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유대사람 아닌 외교인에게도 구원이 도달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계급과 민족을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제2독서(요한 1서 4장 7-10절 P.548)

모세는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요한은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해 본 사람은 하느님이 누구 신지를 알아 듣습니다.

□복음(요한 15장 9-17절 P.246)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배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람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시고, 당신 외아들까지 내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벗들을 위해 당신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어른스러운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 기쁨을 나눠주십니다. 남에게 <주는 기쁨>을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남에게 주는 일이 힘들다면, 남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면, 자기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호의를 남에게 내주기 싫다면, <주는 기쁨>을 못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정이 산책



정민재 작곡
이민재의 창작곡이다

교황 대사를 모시고 (1)

—교구 방문 제1일 (5월 6일)—

한 상 감

주한 교황대사 루이지 도세나 대주교님의 교구 방문 78시간 30분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날씨가 좋다. 6일 오전 9시30분 교구청을 출발한 영접차가, 고속도로를 틀게이트에 들어섰을 때 교황대사 승용차가 경찰서장님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나타난다. 잠깐 차를 멈추어 김주교님과 배신부님이 환영인사를 나누고 다시 시내로 들어서 교구청에 도착하니 9시55분, 도착 예정시간 5분전이다. 시간 개념이 비교적 희박한 우리들에게 주는 인상이 꽤 크다.

가톨릭센터 정문에서 기다리시던 전병우 전주시장님이 주교님 응접실까지 오셔서 30만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환영인사를 드리고 간단히 전주시의 현황을 소개했다.

교황대사님 주례의 교구청 축식식에 이어 교구청 개관 테이프를 교황대사님, 김주교님, 교구내 가장 고령이신 85세의 노(老)사제 이철연 신부님, 교구 평협회장 조성호씨, 전병우 전주시장님이 끊었다. 축성은 계속되고, 뒤를 이은 많은 교우들이 교구청 이곳 저곳을 구경하기에 바빴다. 이어 교구청 회의실에서 교구 사제단과 평협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청 준공에 공로가 큰 이진기(삼양건설 사장), 박만식 (CNU 건축 설계 연구소), 이길우(현장 사무소장)씨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10시50분부터 교구 현황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다. 현황 소개는 김종택 부주교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법석규 사무국장 신부님이 대신하였다.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시는 교황대사께서는 간간히 질문도 던지신다. 현황 소개에 이어 교구청 신축에 따른 제반 보고를 김영신 관리국장 신부님이 했다. 사제단과의 식사후 설득도 없이 남원을 향해 출발이다.

임실군 경계에서는 경찰서장님이 직접 나와 남원군 경계까지 에스코트를 해주었다. 마침 춘향제를 지내고 있는 남원인처럼 교통이 몹시 혼잡하다.

200여명의 교우가 나와 영접해준 남원 성당에서는 미사 봉헌으로 방문일정이 시작되었다. 본당 현황소개에서 김병열 신부님의 “오늘날 춘향의 참 아름다움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절개는 선반위에 얹어놓고 절모습만을 찾는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끝마친 현황 소개는 특색

이 있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맛이 있어서 좋았다. 이어 춘향제 행사를 구경하였다. 마침 명창대회가 있어 잠깐 참관하고 광한루 경내를 둘러 보았다. 교황대사를 영접하는 기관장들의 예우는 꽤 좋았지만, 지저분한 경내의 모습은 한국인의 공덕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다시 전주로 돌아와 성체수녀원을 방문하고 수녀원 뒷뜰에 안치되어 있는 고김현배 주교님과 성직자들의 묘소에 헌화하고 수녀원 성당에서 현황 소개를 들었다. 조산소(助産所)를 하는 일이라든가, 수녀원 지원자는 늘어가고 있으나 시련소가 좁아서 문제라는 점을 들을 때 꽤 고무적이었다.

교황대사는 수녀님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체께 대하여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며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교황성부께 충성을 다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충실하시오. 우리들 힘의 원동력인 성체께 자주 기도하시오. 성체께 자주 찾아 오시오. 일할 때나 쉴 때도 찾아 뵈고 말씀 드리시오. 지쳐 있어 말이 안나올 수도 있겠지만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성체는 여러분을 불사르고 변화시키고 재촉하는 사랑이 될 것이요. 그래서 거룩한 수녀가 되시오. 성인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요. 널리 들어나는 일보다 성체와의 은밀한 결합을 더 구하시오. 성덕으로 자라나시오. 교회는 거룩해질 것이요. 우리 모두 거룩해 집시다.”

말씀의 실마리들, 불란서에서 중풍환자들을 돕는 수녀들에게 지방관리들이 찾아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느냐?”는 질문에 그들을 말없이 성당의 감실로 데리고 가서 “우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실에 계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예화로 시작하신 교황대사의 말씀은 듣는이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마침 새로 서품된 세분 신부님들까지 초대한 저녁 식사를 들고 돌아오니 밤 9시가 넘었다. 교황대사 교구 방문 첫날이 저물었다. (敎區 平協 事務局長)



사진 설명: 1. 틀게이트에서의 영접, 2. 전주시장의 교황대사 예방, 3. 교구청 축성, 4. 교구 현황 설명, 5. 남원 성당에서 미사 봉헌, 6. 남원 교우들의 열렬한 환영, 7. 성체 수녀원에서 최 고령 수녀에게 선물을 주시는 교황대사.

※이 사진은 대사 교구 방문 기간(5월6~7일)중 시종일관 수행하며 사진촬영을 한 스태사장 장남수(바오로)씨가 제공하였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간중장남수씨가 스태사장을찾아오신교형자매에게직접봉사못해드린점대신사과합니다.

3·1 사건 공판 방청기

문 규 현 신부

5월 15일, 3·1절 기도회 사건으로 입건된 형제들의 제1차 연기 공판 일이다. 서울 지방법원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는 철저히 차단되고 한마디로 ○○○상태 이상가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위축케 하는 삼엄한 경비속에 진행되었다. 거기에 기동력은 만점이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판을 갈망하며 지켜보려는 많은 애국시민들은 저지 당해야 했고 생각에도 없는 여의도 광장 구경을 해야 되었다니, 꼭 이래야만 될까... 하는 의아스러움을 금할길 없었을 뿐 아니라 경악과 함께 분통이 터질 정도이다. 나와 소위 방청권을 소지한 신부님들 (유장훈, 김종길, 이재후, 정승현, 박종근, 범선배 신부)은 5번에 걸친 수속(?)을 밟고 대법정에 입장했다.

추기경님과 지주교님께서 방청석에 같이 하셨고 이날 역시 가족들은 방청이 제한된 방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9시55분 피고인들이 출정하였다. 순교자적인 모습은 우리의 머리를 숙여지게 하였다. 한결같이 밝은 얼굴들, 그분들의 밝은 얼굴에서 양심의 안정을 찾는 그분들의 마음의 평온함을 역력히 읽을 수 있었다. 모두 방청석을 향하여 밝은 얼굴을 보인다. 문규현 신부님은 손을 흔들어 보인다. 이에 나는 두 손을 번쩍들어 보이니 밝은 얼굴로 무언의 대답을 보내셨다.

10시10분, 3명의 판사들이 입장하여 앉자 재판이 시작되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인정신문으로 시작되었다. 판사앞에 나는 윤보선씨는 사선 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소송법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 변호인단은 국선 변호인 취소 신청을 하였다. 이에 국선 변호인은 출정한 자신의 얼굴이 화끈거린다면서 인정하고 취소를 요청하였다. 결국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인정신문이 속개되었다.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 재판이 국민과 정부, 사법과 국민의 대립이 아닌 이상 신성한 재판장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 정당한 분위기로 개편하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촉구 요망하고, 누구의 개입이나 압력없이 역사를 바라보고 양심에 호소하여 공정한 재판을 요망하고 부르짖었다. 피고인들의 부르짖음이 방청인의 마음에 울릴때 방청인들은 박수를 쳐서 격려를 보내며 동참하였다.

이에 경비관들의 호통소리와 함께 재판정은 폭소로 가득차기도 하였다. 인정신문이 끝나고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 있었고 변호인단은 공소 기각신청을 하였다. 하경철 변호사의 공소기각 신청 이유 낭독이 있었다. 우리의 마음이 아팠, 그렇고 말고! 하며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사실 심리에 들어갔다. 먼저 윤보선씨에 대한 직접 신문이 있었다. 여기에서 그분은 당신의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왜 나같은 사람은 집에 두고 11명만 구속하였느냐고 물으면서 동료들의 고통에 같이 하지 못함을 마음아파 하셨다. 이후 일단 휴정하고 오후 2시30분에 재판은 다시 속개되었다. 시작과 동시에 변호인단은 변호인이 피고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피고인과 자유롭게 만나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조사될 기회를 요청하면서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10분 휴정을 갖은 후, 재차 연기신청을 하며 그대로 속개된다면 변호인단은 퇴장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게 왜 일인가! 그래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변호인단이 퇴장하였다. 신속은 좋으나 공정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애달픈 일이다. 뒤를 돌아보 보는 피고들, 나는 문신부님과 말없이 두손을 번쩍들어 승리하리라고 표시하며 동료사제 신자들이 같이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라고 당부하였다. 문신부님은 미소를 보이신다. 나는 그분의 무언의 말씀을 알 수 있었다 분명히 용기와 위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일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 변호인단과 방청인들이 퇴장한 후 김대중씨에 대한 직접 신문을 계속했다. 그러나 법률에 능통한 분들과 맞설수 없기에 자신은 변호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밝히고 자유로운 변호인과의 면회를 요청하고 또 가족과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며, 문제의 국구선언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셨다. 이에 4시에, 공판은 29일 오전 10시로 다시 연기 되었다. 그런데 또 토요일이니 이게 무슨 이유인가? 다른 재판이 없는 이날을 택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모르겠다.

법정을 나와 밖으로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호송차라도 보려고 연도의 경찰과 기관원의 저지를 받으며 운집하여 있었다. 그러나 호송차는 다른 길을 통하여 서대문 형무소로 갔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분들의 고통이 결코 저버려지지 않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고속버스에 몸을 던졌다.

주여 당신은 진실하시니 모든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당신께 신뢰하는 우리입니다.

요십이 (147) 김병호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③ 5 0 1 3
김원준(야코버)

돈 보스피의 제자들

사레지오 동문회
(在 全 北)

일시: 1976년 5월 22일 오후 5시
장소: 전주 덕진천주교회
(전북대앞)
회비: 1,000원
연락처: 아세아 약국(고속버스 터미널옆)
전화 ③ 2 4 2 3

블러 주시면
언제라도

연탄

어름

신속, 정확, 친절
배달하겠습니다

이 영 희 (다두)
◎전주시 건동 성당 골목
(전화) ③ 8 4 6 6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공지사항 ※

1. 김 후상(바오로) 신부님 금경축 (26일<수> 오전 11시반, 가톨릭 센터 강당)
1926년 5월 29일 사제 서품되어 50년을 하루같이 복음 전파에 몸 바쳐 오신 김 신부님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축하의 정성을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약력: 거제도 옥포리, 대구 명치, 진동, 군산, 교구청 경리, 화산, 대리 주교, 중앙, 이리, 임실, 남원, 교구청 상서국장, 황동 천주교 주임신부 역임. 67년 6월부터 은퇴 휴양 중
2. 사제 연수회 「강론의 실제」 (24일~26일 교구청 회의실)
연수회 기간중에 본당에 신부님들이 안계십니다. 이 연수회의 성공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제 4지구 중고등 학생회 회장단 회의(다음 주일 오후 3시, 중앙성당 사제관 3층)
4. 승천 합동미사 봉헌(5월30일)각가정에서는 순교자의 시복시성을위한특별미사를봉헌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양)

주 임 신부 이 대 권
수석보좌 신부 한 김 삼
제2 보좌 신부 김 영 일
사 도 회 장 사 도 회 장 이 상 용

전화 ③3651
③3874

1. 꾸리아 옥외 행사: 오늘 오전 11시, 상관 저수지
2. 미사 시간 안내: 주일 (아침 5시반, 오전 8시반, 10시, 8시) 평일(아침 5시반, 오후 6시, 8시),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8시), 토요일(오후 5시, 6시반)
3. 성모의 밤 행사 ① 어린이-토요일 저녁 7시, ② 전신자-주일(30일) 저녁 8시반 ③ 7시반 미사 * 준비물: 묵주, 초
4. 예수 승천 대축일 합동 (복자, 서학, 덕진, 노송) 야외미사 30일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에서
5. 영세식: 29일(토) 6시, 축하합니다.
6. 고등부 학생회 월례회: 22일(토) 학생미사후
7. 성신 강림주일(6월 6일)에 있을 견진자를 위한 특별 교리 시작 일시: 5월31일~6월4일까지
8. 독서실 도서 구입 현금 회사: 김동준(야고버)신부님 (1만원), 애령회(2천원) ① 감사합니다.
9. 문신부님을 위한 현금: 전매정, 성화회(5천원)

(노송동)

주 임 신부 공 아 영
사 도 회 장 사 도 회 장 조 해 렬

전화 ③7032

1. 재속 형제회 월례회(누각다 묘지에서): 오늘 10시반 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① 12시미사
2. 성모의 밤 행사: 29일(토) 오후 7시반 미사후 ① 각 신심단체-꽃준비, 개인-조준비
3. 예수 승천 대축일(30일) 본당 공식 미사 없습니다. ① 11시 성직자 묘지에서 있을 합동미사에 많은 참석 바람.
4. 올겐 현금: 익명(10만원) ① 감사합니다.
5. 성당 신축 현금: 익명(전동 5백원)
6. 성당 의자 현금: 백경조(천원)

(덕진)

주 임 신부 박 종 근
사 도 회 장 김 용 환

전화 ③2182

1. 예수 승천 대축일 합동 야외미사: 30일(주일)11시, 치명자산 ★ 준비물-기도서, 묵주, 도시락, 성가책 본당 전 신자를 위한 생미사 봉헌

한가정도 빠짐없이 봉헌 합니다.

2. 애령회 성미, 성금 목표액 10만원 ① 누계 49,06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 임 신부 김 종 길
사 도 회 장 조 성 호

1. 옥외행사 야외미사: 오늘 10시반 효자동 신홍공업사 우측산,준비물-성경책,기도서,성가책,묵주, 도시락 참가자-L. M 단원, 협조단원, 주일학교, 전신자 ① 9시반까지 본당에 집합 바랍니다.
2. 성모의 밤 행사: 5월30일 저녁, 각 신심단체에서는 초, 꽃다발, 축시, 축창, 축도 봉헌 바람.
3. 예수 승천 대축일 오전 10시 치명자산에서 야외미사 ① 본당 공식 미사는 없습니다. 합동 가정미사 봉헌 (새 성당 기금으로 교구적으로 실시) 각 가정에서는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복자, 노송 전신 체육대회: 30일 해성학교 운동장 ① 중·고등학생, 주일학교 어린이, 부모님들의 참석 바람.
5. 복자 신용 협동조합 회계미사 이명숙(겐마)양 서울에서 1개월 교육 받은후 5월부터 근무 시작.

(서학동)

전화 ③2276 주 임 신부 김 영 일
사 도 회 장 박 장 훈

1. L.M 옥외행사: 오늘 공식 미사후, 상관 어두리공소 ① 단원, 협조단원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시내 본당 합동 미사: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치명 자산(중바위)에서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 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한 윤 섭
사 도 회 장 양 윤 모

1. 예수 승천 야외미사: 다음주일 12시 덕진능(별)
2. 동대항 교리 경시: 오늘밤 8시 미사후 각동에서 10명 출전
3. 성모의 밤: 31일(저녁 8시반) 성가경연 (각동 20명)★
4. 미사시간 변경: 아동 미사-토요일 오후 5시, 평일-저녁8시반.
5.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반
6. 이토마스, 강데레사 수녀 종신 허원 피정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검 수 신 배 음	청년회 월례회	5,000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동 황	신용협동조합 교육예정	65,400원
		제단 개수 공사 17일 착수	23,280원			어머니 성심회 월례회	52,595원
제 2 지구	대 윤 열 동 합	예수승천 축일(30일) 행사	4,160원	제 4 지구	중 노 덕 복 서 학 동 전	청년회 임시총회, 유아세례	6,175원
		애령회, 청년회 월례회	18,500원			꾸리아 옥외행사	71,660원
		L·M 아치에스 행사	7,040원			재속 형제회 월례회	27,730원
		꾸리아 회합	54,165원			예수 승천축일(30일) 야외미사	14,465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카리파스 월례회	30,095원	제 5·6 지구	무 정 장 진 남 순 임	옥외행사	21,860원
		군옥지구 4개 분당 L·M 아치에스 행사	15,805원			동대항 교리 경시	76,901원
		그리스도왕 모후 꾸리아 회	14,400원			사제 양성후원회에 가입 합니다.	6,595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천호 공소 주일학교 소풍	3,605원			예수승천 축일(30일) 야외미사	3,960원
		본당 야외미사 (다음주)	15,610원			성모의 밤(29일)행사	7,050원
		연령회 월례회	13,085원			사제양성 후원 신용적금 접수	13,980원
						야외미사 (관촌)	6,040원